

한국청년방일단(제 4~5 단) 초빙사업의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대일이해촉진교류프로그램(JENESYS2023)’의 일환으로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에서 선발된 대학생 등을 초빙하여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지방재생사례(아오모리현)’라는 테마 아래 각종 시찰, 학교방문, 강의청강 등을 통하여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향후 한일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사전 프로그램(온라인 사전학습) 한국 대학생 등 67 명
초빙 프로그램 한국 대학생 등 67 명

【방문지】 사전 프로그램 도쿄도 67 명
초빙 프로그램 도쿄도, 아오모리현(青森県) 67 명

【일정】

■ 프로그램 :

12 월 27 일(수) 방일 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 초빙 프로그램 :

1 월 9 일(화)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입국, 도착 오리엔테이션

1 월 10 일(수) 【표경】 외무성, 환영 중식회

【시찰】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시찰】 이수현 씨 추도·현창비 시찰 등 신오쿠보 필드워크

1 월 11 일(목) 【학교방문·교류】 (제 4 단) 호세이(法政) 대학, (제 5 단) 메지로(目白) 대학,
아오모리현으로 이동

1 월 12 일(금) 【표경·강의】 아오모리현청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지방재생 활동에 대하여’

【시찰】 아오모리현 관광물산관

【강의】 ‘지역×청년×기업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마을로’

1 월 13 일(토) 【강의】 ‘지역에서 아이들을 서로 지원하는 활동’

【시찰】 도와다시 현대미술관, 도와다시 교육플라자, 시민교류플라자 ‘도와레’

【교류】 홈스테이

1 월 14 일(일) 【교류】 종일 홈스테이

1 월 15 일(월) 【교류】 홈스테이 해산식

【학교방문·교류】 아오모리주오가쿠인(青森中央学院) 대학

1 월 16 일(화) 【시찰】 네부타의 집 와랏세, 성과보고회(방일 성과·귀국 후 활동계획발표)
도쿄도로 이동

1 월 17 일(수)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2024년 1월 10일 【강의】
‘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하여’



2024년 1월 11일 【학교방문·교류】
호세이대학



2024년 1월 11일 【학교방문·교류】
메지로대학



2024년 1월 12일 【표경·강의】 아오모리현청
‘지출산·고령화 대책과 지방재생 활동’



2024년 1월 12일 【강의】
‘지역×청년×기업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마
들로’



2024년 1월 13일 【강의】
‘지역에서 아이들을 서로 지원하는 활동’



2024년 1월 15일 【교류】
홈스테이 해산식



2024년 1월 15일 【학교방문·교류】
아오모리주오가쿠인대학

3. 참가자 감상(발체)

◆ 한국 대학생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재생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과제이므로 일본의 사례를 보고 한국에 맞는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지역재생에 힘쓰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재생을 위해서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방문에서는 국적을 초월하여 이러한 테마에 대하여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기뻐합니다.

◆ 한국 대학생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일본의 영빈관을 시찰하여 일본의 다양한 건축양식과 손님에 대한 오모테나시(환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과의 교류에서는 평상시에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나 지방재생에 대해서 접근하여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참가한 대학생 전원이 한국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에 유학할 예정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쿨재팬 리포터를 통해 만난 일본친구와는 오래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국 대학생

행정과 민간의 입장에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홈스테이가 있었던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직접 느끼고 배우는 일본에서의 생활이 아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부타의 전시는 장대하면서도 역동적인 그림과 이를 재현한 네부타의 작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오모리와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보는 것으로 장인의 기술이나 일본적인 예술의 세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4. 일본 측 감상(발체)

◆ 아오모리현청 관계자

눈이 많이 오는 추운 날씨에 한국에서 많은 대학생이 아오모리현까지 와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오모리현에서 실시한 강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지방재생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에서는 참가한 학생 여러분이 진지하게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강사에게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과 한국의 가교가 되어 더욱더 교류가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

한국의 청년들과 만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모두 예의가 바르고 상냥하게 지내 주었습니다. 특히 고령자를 대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안겨줍니다. 또한 일본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기뻐합니다. 공통의 화제가 생겼습니다.

◆ 호세이대학 학생

원래 대학의 유학제도를 통해 한국에 유학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접할 기회가 적어지고 있는 와중에 귀중한 교류에 참가하여 ‘한국사람들과 말과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체험을 하게 되어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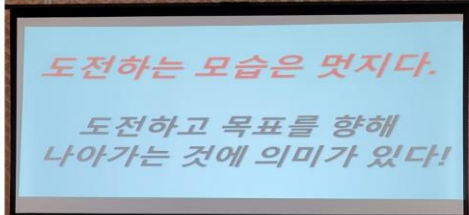
◆ 메지로대학 학생

아주 밝고 상냥한 학생들과 같은 그룹이 되어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에서는 결혼·출산에 대한 한국인 학생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신선하고 즐거웠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것은 양국 모두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뿐이었는데 토론회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아오모리주오가쿠인대학 학생

이번에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했는데 제가 속한 그룹에서는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교육, 관광, 복지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지방재생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다면 고령자가 생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 방안을 생각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는데 지방재생의 새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그룹이 되어서 좋았다고 들어서 기쁩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췌), 보도기사 등

 <p>호텔에 있는 회의실 같은 공간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앞으로의 일정, 학생대표단 인사 등 준비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고 이수현님의 추모영상도 보았다. 이수현님의 부모님께서도 현재까지도 일본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 아들의 뜻과 이름을 내건 장학금 사업을 지속하시는 것이 무척 대단하다고 느꼈다. 가족을 비롯한 이수현님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순환적인 추모의 방식이길 바란다.</p> 	 <p>어린이식당 실행위원회 강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 도전하는 모습은 멋지고, 그만큼 도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목공, 추진력, 프라모델이라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어린이의 행복한 미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쓰는 멘토님의 모습을 보며 나도 지역 발전과 재생을 위해 나의 강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p>
<p>2024년 1월 9일 (Blog)</p> <p>고 이수현 씨의 추모영상을 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유학생들을 위해 아들의 뜻과 이름을 내건 장학금 사업을 현재까지 계속하시는 것에 무척 감명받았습니다.</p>	<p>2024년 1월 13일(Blog)</p> <p>어린이식당 실행위원회 강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전하는 모습은 멋지다. 도전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살려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지역 발전과 재생을 위해 자신의 강점을 찾아 나가보고자 합니다.</p>

단순히 일본인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닌,
한일 대학생교류회라는 것을 가지게 되어 나라를 향한 자부
심도 느꼈고
일본에 대한 애착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일본에선 제트세대라고만 하는 것도 배웠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한국 가수들도 들었고
우리도 오타쿠인 거 다들 말 하고...

아아.. 일본인 친구들이 좋아요...

그리고 한국친구들 일본친구들과 열심히 떠돌고 난 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
어음



사실 서울에 살면서 지방의 문제에는 크게 관
심이 없었는데, 지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렇게나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배워
서, 앞으로도 관련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2024년 1월 11일 (blog)

단순히 일본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한
일대학생교류회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자부심
을 느꼈으며 일본에 대한 애착도 높아지는 계
기가 되었고 일본인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일
본에서는 Z세대라고 불리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학생들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blog)

서울에 살아서 지방의 문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지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앞으로도 관련 문제에는 꾸준한 관심을 가지
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青森 NEWS WEB

韓國の大学生 青森県で少子高齢化対策や地
方再生を学ぶ

01月15日 07時07分



海外の学生に日本への理解を深め
てもらふ外務省のプログラムの一
環で、韓国の大学生が青森県を訪
れて少子高齢化対策や地方再
生の事例について学んでいます。

外務省は日本への理解を深めて
もらおうと手帳を通じて世界各国
から若者を招いていて、今月、青森
県には日本語などを専攻する韓国の学生63人が滞在しています。

この「韓国青年訪日団」の歓迎式が先週、青森市の「アスパム」で開かれました。

県観光国際戦略局の松尾英精次長は「青森らしい冬の景色を楽しみ、多くの県民とふ
れあって青森の魅力を韓国で広く伝えてほしい」とあいさつしました。

2024년 1월 15일(NHK 아오모리)

‘한국의 대학생 아오모리현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지방재생을 배운다’ 저출산·고령화 대
책과 지방재생을 테마로 대학생 일행이 아오
모리현 내에서 필드워크, 고쇼가와라시(五所川
原市) 주변에서 홈스테이등을 예정하고 있다
고 소개.

2024년 1월 17일(도오닛보·東奥日報)

‘쓰가루(津軽) 스테이 “평생가는 기억” 방일
한국학생, 63명이 보고회’ 2박 3일의 홈스테
이 후에 실시된 보고회의 모습을 소개.

6. 보고회에서의 방일 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방문지: 도쿄도, 아오모리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Jenesys2023 겨울 클재팬리포터 4주 소감</p> <p><방일소감></p> <p>첫째, 평소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인성있는 만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공개 고백하고, 그 문제를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에 감명 받았습니디. 따라서 지도 상자에 그려지 않고 실재 하는 시야에 더 도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p> <p>둘째, 일본 시골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사적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도시의 현대성과 새로운 문화의 공존이 인상 깊었고, 특히 '고령화'라는 키워드가 인상 깊었습니다. 도시의 현대성과 새로운 문화의 공존이 인상 깊었고, 특히 '고령화'라는 키워드가 인상 깊었습니다.</p> <p>셋째, 일본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화'라는 키워드가 인상 깊었습니다. 도시의 현대성과 새로운 문화의 공존이 인상 깊었고, 특히 '고령화'라는 키워드가 인상 깊었습니다.</p> <p><액션플랜></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3%;"> <p>알리기(2회)</p> <p>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통해 방일 소감을 알리기</p> </td> <td style="width: 33%;"> <p>소통하기(3회)</p> <p>호세이대학, 아오모리대학교에 방문하여 교류한 일본인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를 마련</p> </td> <td style="width: 33%;"> <p>돌아보기(4회)</p> <p>테마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 공유하기</p> </td> </tr> </table> <p><최종목표> 교향악성발, 워킹홀리데이 합격, JLPT1급, JPT800</p> </div>	<p>알리기(2회)</p> <p>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통해 방일 소감을 알리기</p>	<p>소통하기(3회)</p> <p>호세이대학, 아오모리대학교에 방문하여 교류한 일본인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를 마련</p>	<p>돌아보기(4회)</p> <p>테마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 공유하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2023 겨울 JENESYS</p> <p>5단 6조 C그룹</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청년방일단 ... "참여 소감"</p> <p>이번 겨울 방일단은 동서에서 일컫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친구들의 만남과 교류의 대장단이다. 겨울 나고 새해가 준비된다는 설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p> <p>이번 방일단은 동서에서 일컫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친구들의 만남과 교류의 대장단이다. 겨울 나고 새해가 준비된다는 설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p> <p>액션 플랜 ...</p> <p>1월 방일단 SNS 활동하기</p> <p>2월 방일에 방문한 친일대 학생 교류 활동</p> <p>3월 방일단 SNS 활동하기</p> <p>장기계획 ...</p> <p>JLPT 1급을 목표로 유학의 꿈을 실현</p> </div>
<p>알리기(2회)</p> <p>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통해 방일 소감을 알리기</p>	<p>소통하기(3회)</p> <p>호세이대학, 아오모리대학교에 방문하여 교류한 일본인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를 마련</p>	<p>돌아보기(4회)</p> <p>테마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 공유하기</p>		
<p>【방일 중의 배움】</p> <p>일본문화의 다양성을 만끽한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현대성과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과 자연경관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p> <p>【테마에 관한 방일 중의 발표】</p> <p>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재생사례에 관한 강의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에 대해 고찰했습니다.</p> <p>【액션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스타그램이나 YouTube 등의 SNS 를 활용하여 JENESYS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위에 소개해 나갑니다. 학교방문을 통하여 교류한 일본 친구들이나 홈스테이의 호스트 패밀리와 지속적으로 계속 교류합니다. 대학생 방일단의 동창조직인 KJAF(Korea Japan Alumni Forum)에 참가하여 일본과의 교류를 계속 추진합니다. 	<p>【방일 중의 배움】</p> <p>홈스테이에서는 가정의 문화와 책상 앞에서 공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생활 일본어를 배워 중요하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행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다양한 가치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한일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테마에 관한 방일 중의 발표】</p> <p>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지방재생사례에 관한 관계자의 강의를 듣고 지역의 대학생들과 연계한 인터넷활동의 추진, 콘테스트의 실시 등, 현직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독자적인 정책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p> <p>【액션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일 중의 사진을 이용해 SNS 에 올립니다. 서클활동을 통해 한일대학생교류에 참가합니다. 네부타 마쓰리에 관한 발신을 합니다. 알게 된 일본인 학생과 한국에서 교류합니다. 일본기업의 취업박람회 에 참가합니다. 교환유학·JLPT 준비를 합니다. 한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한일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합니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